Travel p/13

설렘있는 도시 부산 이야기

메트로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

상반기 맥주 수입 사상 최대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맥주 수입총량은 5만381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2000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치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장 모습. /연합뉴스

최경환호 경기 부양 '드라이브'

올 추경편성 않겠지만 내년 확장재정 펴겠다
LTV·DTI 부처 협의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경환 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최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장 나랏돈을 투입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피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듣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TV와 DTI 규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 규제는 부동산 버블을 막는 데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획일적인 적용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심각도 짚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역량을 총동원해 흐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채권시장 금리인하에 베팅

최경환 호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정책 공조를 이유로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시장은 벌써부터 8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8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채권가격이 최근 조정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수렴되면서 금리 인하 예상 기관이 동결 예상 기관보다 2배 가량 많아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준금리 전망을 밝힌 24개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16곳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 13곳, 해외 3곳이었다.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점쳐왔지만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당국이 8월 기준금리를 0.25~0.50%포인트 내릴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저성장과 저물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 부정적 영향 언급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 총재가 16일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른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환율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 상황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학위 논문 제출 전 '표절 검사'

교육부가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사원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최근 연구 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 학위에서 석사 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논문 작성과 심사 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대학원에 대해서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 평가도 추진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 진단반을 구성해 대학원 대학 42개교, 일반 대학 대학원 중 20개교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hj@

더 완전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한복 체험 외국인 학생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제6회 바롬국제프로그램(Bahrom International Program)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태권도와 한복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BIP는 미국, 캐나다, 홍콩, 러시아 외국 학생과 교수 50명, 서울여대 영어권 파견 교환 학생 55명, 전문 스텝과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 100여 명으로 총 2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제공

정성근 결국 '자진사퇴'

정종섭 장관 등 6명 임명… '2기 내각' 스타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온갖 논란과 파행을 거치며 16일 일단 스타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청문경과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

마지막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 용서를 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위증 문제와 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회식 논란에 이어 야권에서 '여자문제'를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이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은 출발부터 자질을 빚게 됐다.

다만 최경환, 이기권 신임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 시작을 알렸다. 최 장관은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상은기자 mkim@metroseoul.co.kr

'비박' 지도부 새누리 바꿀까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 '비주류' 김무성 대표를 선택했다. 그동안 "국정 동반자로서 할 말은 하는 집권여당"을 강조한 점이 승리하는 데 한 몫했다는 평가다.

당 선거기간 서청원 최고위원과 친박 대 비박 대결 구조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었다.

서 최고위원은 선거 막판 '박심(朴心)'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며 당심을 공략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특히 전대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현장 대의원 표심을 흔들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일각에서는 '친박의 몰락'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앞으로 김 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지도부 체제에서는 당·청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경선 기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인사 난맥상 등과 관련해 김 실장의 직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우회적인 사퇴 압박까지 불사하며 잡음성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출로서기에 성공한 김 대표가 앞으로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은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민심을 보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거나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김 대표 개인에게 조명되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치보다는 새누리를 바꾸라는 목소리에 부응하고,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시대적 소임에 충실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인사하는 총리와 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 "사퇴 관철시키지 못해 죄송"

대통령에 사전 인재 발굴 제안

정홍원 국무총리가 자신의 유임 결정과 관련,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임 결정 후 처음으로 국회 발언대에 선 정 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앞서 "제 거취 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했었다. 후임 총리 임명 실패에 따른 장기간 국정 공백 우려로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표가 사실상 수리돼 유임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수리 행위가 확실히 있었다면 퇴임하고 나가야 하지만, 수리 행위가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기 내각 일부 후보자 낙마와 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근래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고, 충분히 인재를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

내달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검토

● 정부가 미얀마에서 다음달 9~10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내달 회담이 성사될 경우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된다.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19일 공식 방한

● 아니발 안토니오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19~21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실바 대통령은 21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 신재생에너지, 항공, 해운, 항만, 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 사적 국외방문시 공관 지원 불가

●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찾을 때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관련 정부 지침에 최근 반영됐다.

정부는 외교부 예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민구 "군 총체적 위기…기본 다져야"

16일 오전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22사단 총기사건 이후 국민이 군을 불신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요지휘관회의에 첫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은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대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위기"라며 "최근 일련의 사고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내부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각급 제대 지휘관부터 안전한 병영관리와 작전기강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석식을 앞두고 토의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GOP 총기사건, 적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민준기자

직장인 절반 퇴직금 이미 썼다

생계 등 이유 수령… "막막한 노후 걱정에 후회"

직장인 절반이 퇴직과 이직,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잡코리아가 16일 공개한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75명(54.9%)이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91.6%(1622명)는 가족 생계 등 생활비(47.1%)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받아 썼다. 이 외에 해외여행 등 여가(21.4%), 전세·주택 구입(14.5%), 결혼(5.4%), 기타(4.2%), 자동차 구입(2.7%) 등에 퇴직급여를 사용했다.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7.5%는 돈을 쓰고 난 뒤 후회했다. 이유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회를 놓쳤다(55.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7.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후 준비 수단(복수응답)은 국민연금(61.8%), 개인연금(54.6%), 저축·펀드(48.8%), 퇴직연금(31.7%)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은 노후자금의 안정성(84.2%, 복수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이어 수익률(46.5%), 세제혜택(18.7%) 등을 꼽았다.

한편 이직·퇴직 경험이 있는 1775명 가운데 26%(462명)는 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퇴직급여 체불 이유로는 기업의 재정악화로 인한 체불(36.8%), 퇴직급여 제도가 없는 기업에 근무(33.4%), 기업 도산(22%), 기타(7.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송연주기자 m.kim@metroseoul.co.kr

누가 잘먹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대형마트에서 열린 어린이 수박 빨리먹기 대회 에서 출전자들이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버스 입석금지 첫날 경기도와 서울 간 고속화도로를 지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 첫날인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정거장에서 용인방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방공기업 438곳 소방시설 불량

지하철이나 건설현장 같은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시설물 일부가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건물과 사업장 3만3666곳의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438곳이 상태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안전 관리가 불량한 438곳 가운데 356곳은 시군구가, 나머지 82곳은 시도가 관할하는 지방공사·공단이다. 시도(소속 시군구 포함)별 불량률은 제주(11.7%)가 가장 높고, 울산·충북·전남 등이 낮았다.

또 시설물 5779곳에 대해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시도 산하 38곳과 시군구 산하 159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도별 시설물 안전 불량 비율은 충남(7.1%)이 높고, 대전·충북·제주 등이 낮게 나왔다.

/김보은기자

'세모 근무' 해경 국장 소환조사

검찰이 세월호 사고 이후 세모그룹 근무 경력 논란으로 보직 해임된 해경 고위간부가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최근 이용욱(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1991~1997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세모그룹 재직 시 회사의 학비 지원으로 1997년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해경청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국장이 세모그룹 근무 경력 때문에 세월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민준기자

이혼때 '미래 퇴직금'도 분할 대상

대법 "퇴직연금도 나눠야"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44)씨가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퇴직연금 수령할 퇴직금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대법원은 "퇴직급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승준기자

삼계탕 맛있어요 한서대학교 국제 여름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광장 분향소 일부 철거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재정비할 방침이다. 최근 조문객이 줄면서 불필요한 시설들이 생겨났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16일 "우선 대기자들을 위한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며 "분향소 설치 초기에는 하루 4만2000명이 분향날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일 조문객이 100~4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우기 전 분향소 전체 시설물을 점검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없애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시설은 모래주머니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사회가 기부한 노란 리본의 정원 시설물은 분향소가 운영될 때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김숙현기자

안전공단-동서발전, 업무 협약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북정동 한국동서발전 7층 회의실에서 한국동서발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울산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양 기관은 혁신도시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제공, 한국동서발전은 협력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예방 합동 점검, 재해 원인조사, 뇌·심혈관 질환 예방 등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등을 공동 전개한다.

월계 각심워터파크 개장

서울시 노원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월계동 각심워터파크를 18일 개장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운영 방법은 30분 가동 후 30분 휴식 시간을 갖는다.

'찾아가는 문해교육' 추진

서울시 관악구가 어르신의 늦깎이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해교육 배달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보라매·신림 구립경로당과 조원아파트·두산 사립경로당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경로당별로 매주 2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동 '진로체험주간' 개최

서울시 강동구가 17일부터 19일까지 상상팡팡 트렌드 진로체험주간'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문화 이벤트, 음식 휴먼서비스, 예술·디자인 3개 테마로 나눠 진행된다. 퍼퓸 디자이너, 특수 분장사 등 이색적인 직업도 접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시안에서 가장 예쁜 엉덩이'

metro HongKong

모델 활동 여성 눈길

중국 시안(西安)시에서 '엉덩이 모델'로 활동하는 여성이 화제다.

대학에서 에어로빅을 전공한 자오페이얼(25). '시안에서 가장 예쁜 엉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2년 전부터 엉덩이 모델로 활동 중이다.

엉덩이 모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는 "눈이 예쁜 사람도 있고 코가 예쁜 사람도 있다. 나는 태생적으로 예쁘고 탄탄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여가시간에 집에서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일이 없는지 알아본다.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즈를 연습한다. 모델로 활동하는 시기에는 다리의 통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찾는다.

자오페이얼의 한나절 수입은 3000위안(약 50만 원) 정도다. 그는 "쉽게 돈을 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모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일을 하고 나면 다리가 붓고 발에 상처가 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西安臀模半日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재개

이집트 중재안 무산… 휴전협상 험로 예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안이 무산됐다. 양측은 15일(현지시간) 또다시 교전을 벌였다.

세계표준시(GMT) 기준으로 15일 오전 6시를 기해 휴전하라는 이집트의 중재안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당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공습을 중단했다. 그러나 하마스가 중재안을 거부한 채 로켓 공격을 계속하자 6시간만에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는 교전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과 박격포 120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도 오후부터 가자지구를 33차례 공습했다.

8일째 이어진 유혈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 19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400명을 넘어섰다. 유엔은 이 가운데 4분의 1이 어린이, 4분의 3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다. AFP통신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38세 이스라엘 남성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집트의 첫 중재안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10월에 시작되는 2015년 회계연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지원예산을 3억5000만 달러(약 3600억원)로 책정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정부가 요구한 예산의 2배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의 90% 이상을 막아냈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5일 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벽 사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AP 연합뉴스

"서민금융, 한번에 지원받는다"

금융위, 통합 거점센터·금융상품 일원화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위한 '원스톱' 지원카드를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 개편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원을 받고 싶은 서민들은 한 창구에서 종합상담부터 현장지원, 사후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은행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했던 신용 6등급 이하의 채무자나 기초수급자,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채무 형태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Pin Point)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관기관별 지원조직을 통합·연계해 전국에 '통합 거점센터'를 25~30개 가량 구축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주거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 계획이다.

현재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거나 상담을 할 경우 여러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특히 서민금융 네트워크 등이 개편되면 대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 알선받을 수 있고,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서민자활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서민형 PB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과 민간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 등을 통한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새희망홀씨 등 기관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들은 '햇살론'으로 일원화 된다.

대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 공급될 예정이다.

예컨대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성격 등의 차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의 창업자금이나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서민 금융 정책은 총괄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 설립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사의 5000억~1조원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오는 7월 중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오는 4분기부터 서민금융 지원상품과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민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통해 외형규모 확대 없이 서민의 자활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취업자 39만8000명↑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6월 취업자수 증가 폭이 4개월째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8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은 2월에 83만5000명을 정점으로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에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으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6월 역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둔화 폭은 상당 수준 줄었다. 6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7월 36만7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이지만,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인 38만600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30만명대 후반이면 나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 인구는 2642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만4000명(2.0%)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1년 전보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8만7000명, 50대 취업자가 18만1000명 늘었다. 40대 취업자는 1만3000명, 20대 취업자는 1만명 각각 늘었다. 다만 30대 취업자는 2만5000명 줄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KOSPI 2,013.48 ▲0.76(0.04%)

USD/KRW 1,032.10 ▲4.70

환율 2개월여 만에 1030원대 지난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해 2개월여 만에 1030원 선을 돌파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032.1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화책 펴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사진) 대한항공 전무가 여행 동화의 작가로 등단했다.

조현민 전무는 16일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지니의 콩닥콩닥 세계여행' 출판을 기념해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조현민 전무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다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이번 책을 쓰게 됐다"며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다양한 친구들과 문화, 여행 경험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 전무는 "집필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기도 했다"면서 "서점에서 어린이 여행관련 서적을 많이 사봤는데 즐거운 내용보다는 안내서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니의 콩닥콩닥 세계여행'은 초등학교 5학년 지니가 혼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동화 시리즈다. 저자인 조현민 전무는 "6주간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 5학년 때여서 주인공도 5학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니라는 소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고, 경험하는 이기자기한 이야기와 완성도 높은 정보가 담겨 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 세계 또래 친구들과의 우정, 글로벌 감각까지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광고와 SNS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는 데 시간을 쏟아 왔다.

특히 그 동안 '소통'과 '변화'를 키워드로 기업 이미지를 변모시키는 한편,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며 감각과 기획력을 인정받아왔던 터라 이번 여행 동화 또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3년)	환율(원/달러)
2013.48 (+0.76)	555.27 (-3.85)	2.58 (-0.01)	1032.10 (+4.70)

뉴스&뉴스

스포츠 맥주 '볼비어' 16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모델들이 스포츠 맥주 '볼비어(BALL BEER)'를 소개하고 있다. /[illegible] 제공

뭉크 '절규' 폰 첫 화면에

● 보령다음은 유럽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국내 전시를 기념해 그의 대표작들을 테마로 한 '에드바르드 뭉크 폰 꾸미기'를 16일 출시했다.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이자 판화가로 유럽 모더니즘의 선구적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로 작품 '절규'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에드바르드 뭉크-영혼의 시' 전시회 공식 미디어 후원사로 노르웨이 오슬로의 뭉크 미술관이 직접 제공한 대표작 이미지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박상훈기자

메이크샵 역직구 4배↑

●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은 자사 역직구 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약 40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메이크샵이 운영중인 역직구 오픈마켓 'OKDGG'는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대비 약 180% 신장했으며 주문건수는 약 1만200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메이크글로비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해외 전문몰을 구축한 업체는 올해 상반기 약 2200여 곳이며 이중 중국어 전문몰이 약 64%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legible]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주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11
2009년 6월 2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아00[illegible]

저렴한 칠레산 돼지고기 맛보세요 16일 서울 청담동 쿠킹스튜디오에서 열린 칠레산 돼지고기 홍보행사에서 요리연구가 임미래 셰프(가운데)와 모델들이 돼지고기를 이용해 가족들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 지급거부 반복하면 '업무정지'

내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시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과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되면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상반기 불공정거래 88건

회사 최대주주가 허위 자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에 조사를 끝낸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88건으로 작년 동기의 81건보다 7건(8.6%) 늘었다. 이 가운데 66건(73.9%)은 검찰에 이첩(고발·통보)됐고,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됐다.

금감원이 검찰에 보낸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였다.

검찰에 넘긴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 보고 위반(13건), 미공개정보 이용(13건), 부정거래(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주문이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ELS 헤지과정에서 기초주식 시세조종 등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와 재무구조,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알고리즘 매매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의 경우 선물연계 시세조종 등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신종·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기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검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속에 조사의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행복주택 2만6000세대 승인

서울 4009세대 착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6000세대가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복주택의 후보지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행복주택 2만6000세대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을 싼값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송파·목동 등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결정된 2만6000세대는 지자체 협의 결과와 민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의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아 확정된 곳이다.

다만 앞으로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민 반대가 거센 곳들을 뺀 서울의 경우 행복주택 4009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이미 사업승인까지 난 가좌지구(362세대)·오류지구(890세대)를 포함해 양원지구(930세대), 신내3지구(200세대), 상계장암지구(50세대), 천왕지구(1000세대), 마천지구(140세대), 내곡지구(87세대), 강일지구(350세대) 등 9개 지구가 그 대상지다.

/김두탁기자 [illegible]

엥바와인 폴마송 주류 전문기업 아영FBC가 17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엥바와인 전용 '폴마송' 출시 기념 사진행사를 하고 있다. 폴마송은 [illegible] 2일간 담가 2일 숙성시켜 마실 수 있는 와인으로 가격은 9000원이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곳간에 516조…5년간 2배↑

사내유보금 1위 삼성 182조, 유보율 1위 롯데 5162%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지난 5년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사내유보금은 515조9000억원으로 5년전 271조원보다 90.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1조 원 씩 불어난 셈이다. 유보율도 986.9%에서 1733.9%로 747%포인트 높아졌다.

10대 그룹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이다. 5년새 86조9000억원에서 182조4000억원으로 95조4000억원(109.8%)이 증가했다.

이중 삼성전자 유보금이 70조9000억원에서 158조4000억원으로 87조5000억원(123.4%) 늘며, 그룹 유보금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3개 상장사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유보금 비중도 8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그룹은 41조2000억원에서 113조9000억원으로 72조6000억원 늘어나며(176%) 2위를 기록했고 SK(24조1000억원, 70%)와 LG(17조 원, 52%)가 뒤를 이었다.

포스코(11조원, 33%)와 롯데(10조3000억원, 63%)가 10조 원 이상 유보금을 늘리며 5, 6위에 올랐다. 이어 현대중공업(8조2000억원, 74%), GS(4조9000억원, 72%), 한화(3조4000억원, 90%)가 뒤를 이었다. 한진은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사내유보금이 2조2000억원(-52%) 줄었다.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87조원 이상 늘리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현대차(33조4000억원, 164%), 기아차(15조원, 426%), 현대모비스(13조7000억원, 189%)가 나란히 2~4위를 차지했다.

포스코(9조4000억원, 25%)→SK하이닉스(8조1000억원, 351%)→SK이노베이션(7조8500억원, 107%)→현대중공업(7조8200억원, 83%)→롯데쇼핑(6조5000억원, 70%)→현대제철(6조원, 116%) 순으로 톱 10을 차지했다.

유보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5162%의 롯데로, 2009년에 비해 863%포인트 높아졌다.

/김태균기자 [illegible]

1년에 단 3일!!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단 하나의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4

AUG 1-3 @송도 달빛축제공원 PENTA PARK / WWW.PENTAPORTROCK.COM

8.1 FRI	8.2 SAT	8.3 SUN
	PENTAPORT STAGE	
이승환	KASABIAN	TRAVIS
데이브레이크	IDIOTAPE	STARSAILOR
SUICIDAL TENDENCIES	BOYS LIKE GIRLS	블락밴션
피아	CRASH	로맨틱펀치
MAXÏMO PARK	ORANGE RANGE	킹스턴루디스카
	장미여관	스컬앤하하
	DREAM STAGE	
CROSSFAITH	THE HORRORS	장필순·조동희·오소영
THORNAPPLE	페퍼톤스	어반자카파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THE INSPECTOR CLUZO	SCANDAL
LIZZY BORDEN	디어클라우드	해리빅버튼
피해의식	솔루션스	위아더나잇
DEMPAGUMI.inc	넘버원코리안	ACOLLECTIVE
	라이프앤타임	스몰오
	MOONLIGHT STAGE	
써드스톤	이지형	RUX
WANGEL	루디스텔로	노리스젝트포뮤티
HUGH KEICE	미미시스터즈	Fourbrothers
MY SKIN AGAINST YOUR SKIN	애쉬그레이	RED FLOWER

COMING SOON

드라마 주연 잡 박람회서 뽑는 이유…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막 유망 스타트업에 취업기회 제공

장면1

A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개발한 적이 있나요?"

B "경험은 있는데 열정이 앞서서 제대로 된 앱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A "게임 포털 기업 출신의 우수 인재가 많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겁니다."

장면2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무대에 올라 즉흥 연기를 한다.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나오면 고난도의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3분간 연기를 한 여성은 "저가 무대는 처음이라 …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당부하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14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이 16일 개막했다.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술과 콘텐츠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일자리 테마전, 창조산업 잡매칭 특별 프로그램 등을 구성했다.

콘텐츠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100여개 국내외 기업들의 채용 부스가 설치됐고 문화예술 분야의 다채로운 전시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일자리 테마전 에서는 토이스미스, 루노소프트, 바이로봇 등 유망 스타트업 기업 담당자들이 채용노하우 전달과 함께 새 인재를 물색한다.

토이스미스의 경우 무선 조종 장난감(RC)에 카메라를 달아 스마트기기로 운전하면서 실제 주행 느낌을 얻는 이색 서비스를 개발했다.

'창조산업 잡매칭' 코너는 채용면접과 함께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취업 컨설팅, 캐리커처 이벤트 등과 같은 구직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뉴 미디어 플랫폼 드라마 '어반라이프'의 HMG엔터테인먼트와 뮤지컬 '친구맺니?'의 유로코리안 등은 현장에서 캐스팅 오디션을 열고 주연급 신인배우를 선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제작사 로이비주얼, 앱으로 K-팝 댄스 한류를 이끄는 와줄엔터테인먼트, 증강 현실(AR) 인프라와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앱 서커스AR'을 출시한 서커스컴퍼니 등 우수 기업과 기관 50여개가 채용상담과 기업 홍보를 병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공식 홈페이지(contentsjob.kocca.kr)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무료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UHD TV '월드컵 특수' 톡톡

삼성·LG, 매출 2~3배

초고화질(UHD) TV 시장이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TV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 UHD TV를 중심으로 국내 유통망에서 2~3배의 판매 신장 효과를 누렸다.

삼성전자는 6월 한 달간 UHD TV의 국내 시장 판매량이 2배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월드컵 특수 효과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판매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커브드 UHD TV 판매도 2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했다. 지난 달에는 삼성 커브드 UHD T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4시간 내 배송 체제를 운영했다. 삼성 TV 구매고객에게 ▲16강·8강 진출 시 상품권 증정 ▲50만원 할인혜택과 비디오릭 증정 ▲홈엔보 응원 패키지 ▲홈엔보 스페셜 H5800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했다.

LG전자 역시 올해 2분기 UHD TV 매출이 1분기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UHD TV 라인업이 55인치를 중심으로 월평균 3배 정도 많이 나갔다"고 전했다.

LG전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신제품 발표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2014'를 열고 UHD TV 등 올해 전략제품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UHD TV 라인업도 7개 시리즈, 16개 모델로 확대하고 보급형 제품도 잇따라 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재영기자

LG전자 미국서 신제품 체험 LG전자가 15일(현지시각) 미국 LA 컬버시티 워시보우에서 프리미엄 냉장고 신제품 체험을 위한 'LG 주니어 쉐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영화배우 브룩 버크, 요리사 산드라 리, 영화배우 조 엘리 피쉬, 방송인 줄리아나 랜식이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벤처기업서 경험쌓고 창업하세요"

중기청, 대학생 70명 선발

한국판 '벤처 포 아메리카'가 등장했다.

중소기업청은 대학생이 벤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창업 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업 인턴제는 대학생이 벤처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졸업 후 창업에 도전할 경우 사업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으로는 다산네트웍스, 비트컴퓨터, 디지엔스, 인카인터넷 등 약 50개가 거론되고 있다.

3학년 이상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오는 17~31일 창업진흥원(창업넷)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차로 약 7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벤처 포 아메리카(Venture for America)'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며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이 인턴으로 벤처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kmine@

떠나는 최문기… 최양희號 공식 출범

미래부 수장 1년여만에 교체 … 창조경제 성과 주목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 1년여 만에 교체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미래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라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하지만 연말이 되면 어느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미래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부처로 '창조경제'를 앞세워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실질적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 문제도 불거졌다. 창조경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다만 1년여만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데 대해서는 최문기 장관의 성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 중복 업무로 조반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신생 부처를 이만큼 이끌어온 데 대해서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최양희(사진) 신임 미래부 장관은 16일 같은 장소에서 취임식을 열고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미래부 장관으로서 들을 때는 과감한 시도를 하려 한다"며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부 직원들에게도 "창조경제와 미래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며 "음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y4@

삼성은 급여, SK는 일·삶 균형

잡플랫닛, 대기업 직원 만족도 조사

"업무는 과중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나 피드백이 확실하다."(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의 자부심이 높으나 인사제도가 매우 비합리적이다."(LG전자)

"최고 수준의 연봉·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기업문화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현대모비스)

"복리후생이 좋고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낮지만 연봉은 높은 편이 아니다."(SK커뮤니케이션즈)

국내 대기업 직원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기업평가 사이트 잡플래닛(www.jobplanet.co.kr)은 삼성·현대·SK·LG 계열사 전현직 종사자 2749명이 남긴 기업 평가와 후기를 분석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급여·복지, 승진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사내문화, 경영진 등으로 나눠 분석(최고 5점, 최저 1점)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급여·복지 분야에서는 현대모비스(4.5)가 1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4.36), 현대자동차(4.21), 현대위아(4.15), 삼성전자(4.1) 등이 뒤를 이었다.

승진 가능성은 SK이노베이션(4.25)이 가장 높았다. 현대엔지니어링(3.75), 삼성SDS(3.71), 현대미포조선(3.7), LG패션(3.64) 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 분야에서는 SK그룹 계열사들이 1,2,3위를 모두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SK이노베이션(4.33)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3.90), SK에너지(3.88)가 뒤를 이었다.

사내문화와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만족도가 떨어졌다. 평균 3.19를 기록한 '사내문화' 항목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4.0), LG화학(3.81), SK텔레콤(3.74), LG CNS(3.70)이 상위에 올랐다. 평균 2.8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경영진에 대한 평가 순위는 SK이노베이션(3.71), 현대캐피탈(3.42), SK텔레콤(3.34), 현대홈쇼핑(3.27)의 순으로 집계됐다.

윤희승 잡플래닛 대표는 "이번 자료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종사자들의 속내를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대기업에 직접 몸담고 있는 전현직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평가한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잡플래닛은 현재 총 1만2000개의 회사가 등록돼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수는 약 43만건에 달한다.

/이국헌기자 kmlee@metroseoul.co.kr

정액순환장에 캠페인 동국제약이 16일 천안공장에서 '정맥순환장에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정의 홍보 모델들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전국 근위병의 분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단지 아파트 분양 '봇물'

뉴타운·재개발 신규 물량 10곳 6810가구 쏟아져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그 동안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이 침체되면서 대단지 분양물량을 보기 어려웠다. 최근 5년간 하반기(7~12월) 서울지역 대단지 분양은 연평균 5.6곳 2800가구에 그쳤다.

다만 올 하반기는 대규모 뉴타운·재개발 신규 분양 물량이 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바빠질 전망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하반기(7~12월)에 예정된 서울 대단지(단지 규모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물량은 10곳에서 6810가구에 이른다.(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

월별로 분양예정인 서울 블루칩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한다.

▲ 8월

삼성물산이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신길뉴타운7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39~118㎡ 총 1722가구를 짓는 래미안영등포에스티움을 분양한다. 이중 78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원 북아현뉴타운1-3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19㎡ 총 1910가구를 짓는 북아현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이중 62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 9월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332번지 왕십리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39~172㎡ 총 2529가구를 짓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단지명 미정)을 분양한다. 이중 1261가구가 일반분양

▲ 10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A13블록에 전용면적 59~84㎡ 총 1205가구를 짓는 엠코타운을 분양한다. 하반기 대단지 분양물량 가운데 유일하게 정비사업이 아닌 100% 일반분양에 중소형으로 구성 돼 관심을 끈다.

마곡지구에는 LG, 롯데, 코오롱,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서 수요가 두껍다.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이 관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에서는 공항로 등을 통해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다.

대림산업이 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일원 옥수13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53~120㎡ 총 1975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옥수를 분양한다. 이중 140가구가 일반분양이다.

▲ 11월

GS건설이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돈의문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25~129㎡ 총 2366가구를 짓는 경희궁자이를 분양한다. 이중 1077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올 하반기에는 교통, 편의시설을 잘 갖춘 도심지역 물량이 많아 분양가가 분양성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청약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격 등을 사전에 체크 해 가격 경쟁력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두희기자 kimdh@

로보카폴리 교통안전 놀이터" 개장 현대차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서 로보카폴리 교통안전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제공

'제4이통' 출범 여부 내주 결론

KMI "통과 자신"…경제 효과·일자리 창출 '긍정적'

'제4이동통신'이 이번엔 출범할 수 있을까.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주 '제4이통'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KMI는 다섯번의 좌절을 겪었다. 와이브로(Wibro)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통신 시장에 후발사업자로 들어가려 했으나 본심사만 들어가면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월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을 활용해 통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려 했으나 서울보증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보증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쳐 허무하게 돌아섰다.

이번 여섯번째 도전 결과는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KMI의 청문심사를 진행하고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KMI는 이번 청문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다. 주파수 신청을 단독으로 낸 만큼 최저가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KMI는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된다.

KMI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신청과정에서 좌절은 겪어봤지만 이번엔 느낌이 좋다"며 "본심사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KMI의 제4이통 출범 가능성에 긍정적인 여론이다. 특히 제4이통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관련 산업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한 LTE 관련 설비투자가 사실상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 장비 산업군의 중소 업계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들어서기 전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제4이통이 출범할 경우 이들 중소업계들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부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전 산업계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제4이동 출범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따끈따끈한 집밥 나눠 드려요”

헝가리 등 유럽서 남은 음식 공유 앱 인기…좋은 일 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일석이조’

글로벌 이코노미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먹는 '착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유럽에서 인기다. 부엌에서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여기저기서 '집밥'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음식 공유 앱과 가정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헝가리의 소규모 벤처 '피크닉'. 집밥을 공유하는 앱이 헝가리 안팎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벤처 기업'으로 성장했다.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집에서 남는 음식을 버리는 대신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콘셉트에 시민은 열광했다.

그리스 업체 '쿠키스토'는 회사에서 집밥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공략했다. 쿠키스토는 기업과 일반 가정을 연결해주는 마을 커뮤니티로 사업을 시작, 1년 만에 4만 명의 회원을 유지하는 쾌거를 누렸다.

피크닉의 설립자 타마스 키스는 과거 한 기업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이곳 저곳 출장을 많이 다녔다. 당연히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다. 그는 "항상 집밥이 그리웠다"며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해먹는 지, 냉장고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도 궁금했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피크닉의 설립자 타마스 키스가 자택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BBC

키스는 앱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분의 음식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사람은 물론 매일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기 보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앱을 통해 자신의 요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봉사 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은 음식을 이웃과 나누고 쓰레기도 줄여서 좋다며 '음식 나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남은 음식의 위생 상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중보건 전문의는 "밀폐 용기에 담겨 있거나 조리하지 않은 과채류를 나눠 먹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릇이나 접시가 깨끗한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잘 싸서 넣어뒀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독일의 음식 나누기 웹사이트 '푸드 셰어링'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만든 음식의 약 30%가 버려진다. 푸드 셰어링은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지난해 독일에서 버려지는 음식의 3만5000t이 '재활용'됐다고 밝혔다.

푸드 셰어링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물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 회원"이라며 "자동차나 빈집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에서 자리잡은 '나눔 경제'가 유럽에서도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中 성장률 소폭 반등…하반기 청신호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 7.4%보다 0.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로 설정한 7.5%와 같은 수준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7.8%) 이후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정부가 '미니 부양책'을 펴면서 소폭이나마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미기자

양배추 한 포기에 얼마? 13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도매 시장에서 한 소년이 큰에 들어 있는 양배추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칼럼 박민상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를 구분하여 그 형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입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거나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취진 02)1582-2224

‘기부천사’로 변신한 ‘오마하의 현인’

버핏, 게이츠 재단 등에 2조8000억 쾌척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이 '기부천사'라는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됐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에 따르면 버핏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B등급 주식 2173만주(28억달러 어치·약 2조8000억원)를 5개의 자선재단에 쾌척했다. 가장 많은 1660만주(21억달러 어치·약 2조3000억원)를 교육과 보건, 빈곤 퇴소에 주력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사별한 전 부인과 세 자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4개의 가족재단에 할당됐다.

버핏 회장이 연례적인 기부 활동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이렇게 많은 돈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버핏 회장이 전체 물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결과다. "평생 동안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대중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CNBC 제공

한편 버핏이 1965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설립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총 80개 이상의 사업부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돈이 1460억 달러를 넘는다.

이 덕분에 버핏의 자산은 658억 달러(약 67조6000억원)로,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버크셔의 이사인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취재부

21세기의 헬렌 켈러

IT도 인문학이다

/박상훈기자 zen똥

최고 속도 11km/h, 주행거리 40km, 허용중량 140kg, 재질 고강도 알루미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휠체어다. 보급형 기준으로 가격이 200만 원을 훌쩍 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는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환자가 힘을 들여 바퀴를 굴리지 않아도 된다.

수동휠체어에 앉아서 바퀴를 굴려본 사람은 안다.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휠체어를 두 손으로 움직이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전동휠체어는 이런 점에서 장애인 인권을 대폭 개선한 물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뜻한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보편적인 권리나 지위를 누리기는 어렵다.

최근 장애인 인권을 또 한번 신장시킬 스마트한 물건이 등장했다. '핑거 리더'로 불리는 스마트 반지다.

이 반지를 끼고 손가락을 책에 갖다 대면 음성이 나온다. 한마디로 '책읽어 주는 반지'다.

미국 MIT에서 개발한 이 제품은 소형 카메라와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유저가 직접 손가락을 움직이면 스마트 반지가 글자를 스캔하고 소프트웨어는 글자를 인식해 컴퓨터 합성음으로 변환해 들려준다.

물론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손가락이 처음과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는 진동을 울려 다음 문장을 쉽게 찾게 한다.

게다가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갖춰 외국 서적을 읽을 때도 매력적이다.

핑거 리더가 점자책이 지닌 상당수의 단점을 커버해 독서가 여의치 않았던 장애인들에게도 지식을 전수하게 됐다.

전동휠체어와 핑거 리더는 개별 기기로 한정하면 장애인을 돕는 IT기술을 활용한 제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면 각각 원할 때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다리'와 전문 지식을 겸비한 똑똑한 '머리'가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그것들은 오직 마음 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드높인 위인 헬렌 켈러의 말이다.

IT기술이 만든 이 시대의 다리와 머리는 그들의 일부가 되어 지속적으로 마음 속을 함께할 것이다.

핑거 리더로 독서를 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사물인터넷 만들어볼까

SK플래닛, 아이디어 공모

SK플래닛이 사물인터넷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2회 크리에이터 플래닛 2014' 행사를 개최한다.

SK플래닛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주제로 다음달 30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SK플래닛의 아이디어 검선을 거친 12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팀 발표 외에 고바야시 시게루 정보과학예술 대학원 교수가 인사로 참석하며 SK플래닛이 자세대 기술을 소개한다. 참가 접수는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진윤호 SK플래닛 CTO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개발자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만들었다"면서 "SK플래닛이 벤처와 혁신의 가치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희기자

짜증나는 스팸 막으려면…

통신사 차단 서비스 활용…안심통화 기능 등 눈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스팸 전화와 메시지가 급속히 늘어났다. 올 초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는 평소보다 5배 많은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 속 스팸 차단 서비스를 알아본다.

이통3사는 자사 통화 기능에 스팸 차단을 탑재했다. 소비자들의 통화 품질 민원과 통신사 본연의 통화 경쟁으로 돌아가자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통화 플랫폼 'T전화'에서 안심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연락처에 저장이 안 된 번호라도 어디서 걸려 온 전화인지 표시해주는 것이다. 이밖에 위치기반 기능을 통해 전화번호·주소·지도까지 검색하게 한다.

LG유플러스는 스팸 차단 기능 '후스콜'을 LTE 통화 서비스 유와(Uwa)에 탑재했다. 후스콜은 전화 수신 시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여부를 알려준다.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운영하는 후스콜은 전세계 6억 건의 스팸 전화 목록과 업종별 전화번호부를 제공한다. 전화번호부를 내려받으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궁금한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스팸 차단 플랫폼은 최신 LTE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다. 각사는 지원 단말을 늘릴 예정이다.

KT의 스팸 차단 앱 '후후'는 국내 약 2200만개 전화번호와 40만개 이상의 악성 전화번호를 토대로 발신정보를 제공한다. 스팸 번호뿐 아니라 일반 가게나 회사의 모르는 전화번호까지 유형별로 알려준다. 후후는 지난해 구글플레이 '앱 어워즈 올해의 앱'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걸잣기 기능을 추가한 '후후114' 버전이 나왔다.

휴대전화 설정만 잘 해도 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스팸전화 등록' 또는 '수신거부 추가'를 하거나 받고 싶지 않은 메시지 문구를 미리 지정하면 사전에 스팸 문자를 막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를 입었거나 스팸을 신고하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sniyun@metroseoul.co.kr

올레 스마트 명세서 KT는 올레 스마트 명세서를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워진 스마트 명세서를 홍보하기 위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슈퍼마500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KT 제공

한중일 통합 글꼴 무료로 쓰세요

어도비, 오픈 소스 '본고딕' 공개

본고딕
思源黑体
源ノ角ゴシック
Source Han Sans
思源黑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중일 통합 글꼴을 무료로 쓸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그리스어, 키릴 자모까지 지원하는 오픈 소스 서체 '본고딕(Source Han Sans)'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고딕은 미국의 구글과 국내 산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동아시아 서체 제작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서체다. 100여 명에 이르는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3년 이상의 공을 들였다.

모바일 기기 화면과 인쇄물 모두에 적합하게 디자인됐으며 총 42개에 이르는 모든 서체에서 7가지 굵기로 제공된다. 어도비 타입킷과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포함된 타입킷 서비스를 통해 데스크톱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스포지(SourceForge)와 기트허브(GitHub)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도비 한중일 베트남 서체 개발 수석 컴퓨터 공학자 켄 룬드 박사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제작할 때 한국어·중국어·일본어 서체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각각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며 "본고딕 덕분에 콘텐츠 제작자들의 보다 원활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종기자 kmkim@

설렘이 있는 도시, 부산 이야기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는 원도심 투어 인기

한국전쟁 이후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 정착했고 임시수도가 생겼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사람이 뒤섞이며 다양함이 공존했다. 향수 어린 추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고 부산의 푸른 바다향과 사람냄새가 서린 곳, 부산의 원도심 중구와 서구, 그리고 사하구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설렘이 가득하다.

◆부산다운 정이 넘치는 중구

남포동으로 대표되는 중구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져 부산에서 제일 부산다운 곳이다.

먼저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는 한국전 당시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 담긴 곳이다. 지금은 40계단을 테마로 그 시절의 특색을 살린 문화거리로 조성됐으며 어려웠던 시절 피난민의 향수가 그대로 전해진다.

남포동에 영화관이 집중된 중심가 BIFF 광장은 영화의 도시 부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영화와 쇼핑, 유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원형무대와 광장 바닥에 찍힌 영화계 유명인사의 핸드 프린팅은 이곳이 스타의 거리임을 실감케 한다.

게다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외침과 함께 부산 특유의 정겨움을 안겨주는 자갈치 시장이 있다. 비릿한 내음과 함께 가슴을 자극하는 부산의 정이 가득하고 근처에는 부평 시장이라 불림보다 깡통시장이라는 애칭이 더욱 잘 어울리는 시장도 있다. 또 밤에는 깡통야시장이 여행객의 맞음 펼쳐진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며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명물 보수동 책방골목도 놓칠 수 없는 부산의 명소다.

◆눈길 닿는 곳마다 추억이 되는 서구, 사하구

서구와 사하구는 눈길 닿는 곳마다 느껴지는 세심한 손길과 넉넉한 여유가 새로운 추억으로 다가오는 장소다.

발길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많지만 그중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최근 인기가 높아진 곳이다.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으로 다대포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으며 연인들에게는 프로포즈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기암괴석과 해송으로 우거진 숲, 수려한 모래해안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붉은 노을이 안개로 번지는 몰운대, 갈가의 갈대밭이 아름다움으로 전해지는 을숙도는 세상의 근심을 잠시 비워둘 수 있는 여행지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낙동강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생성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산자락 아래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들이 한 폭의 그림과 같아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은 골목 곳곳에 조성된 지역예술가들의 조형작품, 어둠의 집, 사진갤러리 등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더 깊숙이 들어와 더욱 즐거운 원도심 투어

부산 원도심이 인기를 끌면서 이 곳을 관광코스로 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우선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원도심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근대역사 골목투어를 마련했다. 중구와 서구, 그리고 영도구 등에 산재한 근대 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는 부산 할매·할매 큰 안내자로 파견해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영도다리를 건너니 ▲용두산에 올라 부산포를 보다 ▲이바구길을 걷다 ▲국제시장을 기웃거리다 등 4개다.

또 롯데호텔부산도 원도심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 'L.T.E ROAD'를 선보였다. 전문 투어 컨설턴트가 투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고 호텔이 직접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로 7월과 8월 두 달간 운영되는 여름 편은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임시수도 기념관 ▲보수동 책방 골목 ▲유치환 우체통 등 명소 부산 갈매기들도 잘 모르는 부산 원도심의 명소들을 돌며 지역에 얽힌 옛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 /부산=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유익한 도심 이색 전시회 '눈길'

부채·가방·의약학 등 다양한 소재 활용

도심을 걸으면 여러 전시회를 만나게 된다. 전시회마다 주제가 다르지만 유독 눈에 띄는 전시회가 있다. 여름을 맞아 다양하게 펼쳐지는 도심 속 이색 전시회를 소개한다.

◆전통과 현대, 부채 안에서 만나다

동화약품과 부채표 가송재단은 서울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접는 부채의 예술적 가치를 선보이는 '제4회 여름생색展'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인 접선(접는 부채)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 이번 전시에는 '2014년 가송예술상' 수상자 및 본선 진출자 13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개성을 갖춘 젊은 작가들의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방이 만드는 리듬

나음 달 말까지 가로수길에 위치한 Backstage Gallery 0914에서는 'BAGSATGE展 by 0914'의 네 번째 전시인 '가방의 소리展'이 열린다. BAGSATGE展 by 0914는 시몬느가 2015년에 론칭할 브랜드인 0914를 위한 전시 프로젝트로 가방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방의 새로운 자극인 '청각'을 다루고 있는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 감독 원일, 설치미술가인 마이클 즐리가와 오세안이 영상과 사운드, 그리고 설치미술이라는 3가지 예술언어를 결합해 '가방이 만드는 리듬'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관객들은 직접 가방을 만드는 공구들을 사용해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생로병사를 밝히다

한독은 창립 60주년과 한독의약박물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조선왕실의 생로병사-질병에 맞서다'를 준비했다. 9월 14일까지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한독 창업주 고(故) 김신권 명예회장이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의·약학 유물을 모아 개관한 한독의약박물관의 유물을 앞세운 것이며 국립박물관과 서울대 규장각 등에 있던 조선 왕실의 의료 유물도 함께 전시된다.

조선시대 내의원 의관이 돼보는 도전 내의원 의원, 제형과 한독의 대표 제품인 소화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소화제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황재용기자

할인도 받고~ 모험도 즐기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썸머 쿨~ 페스티벌' 실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에서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이 '썸머 쿨~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먼저 열대야를 피해 시원한 야간에 관람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야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27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저녁 6시 이후 입장하는 고객들은 정상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8월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방문하는 고객 중 3만 이상 할인되지 않은 정상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아쿠아바이크 이용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아쿠아리움 앞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아쿠아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성수기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는 매일 아쿠아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아쿠아드림 공연의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에 있는 공연 업그레이드 예고편 영상을 공유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아쿠아리움 입장권 4매를 증정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호텔 서비스 인력 양성 우수기관 공모

관광공사, 지원금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내달 8일까지 접수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호텔 서비스 분야에서 열정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워낼 우수 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4 호텔 서비스 인력 양성 우수기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호텔 서비스 인력 양성 교육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수료 후 곧바로 호텔 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발된 교육기관에는 지원금으로 1억원이 전달되고 호텔 서비스 업무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 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서 진행되며 23일에는 공모에 관한 설명회가 열린다. /황재용기자

캠핑장 음식도 '모디슈머' 열풍

서로 다른 제품 조합해 개성만점 간편 야외식으로 인기

캠핑장에도 '모디슈머' 열풍이 불고 있다.

라면 업계에서 시작된 모디슈머는 수정을 의미하는 'Modify'와 소비자 '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새로운 레시피가 계속 등장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제 캠핑장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간편식이나 즉석식품만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입맛과 취향대로 즐기는 3C(Creative Camping Cooking) 제품으로 캠핑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맛과 영양을 한번에

간편한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두 가지 제품만 섞어도 색다른 맛과 두 배의 영양을 겸비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

영양 시리얼인 켈로그 '크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에 일반 우유가 아닌 떠먹는 요거트 매일유업 '바이오 플레인'에 섞어 먹으면 또 다른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다.

또 델몬트 '담은 시즐리스 청포도'에 풀무원 다논에서 내 논 '아이리브 요거트 플레인'을 섞으면 캠핑장에서도 간단히 청포도 요거트 파르페를 즐길 수 있다.

돌(Dole)코리아의 '후룻볼'을 열은 후 동원 F&B '덴마크 아몬듀'를 섞으면 간편 영양 스무디로 변신하게 된다.

◆ '믹서음료'로 캠핑 칵테일을

음료업계의 올 여름 트렌드는 믹

느낄 수 있고 주류에 섞어 먹는 등의 이색 음료들은 캠핑 중 가볍게 음주를 즐기고 싶은 캠퍼들에게 제격이다.

캐주얼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는 알코올 도수가 6%인 저도수 주류 음료로 최근 소주 등에 섞어 '소니니'로 마시는 등 본인들이 원하는 음주 취향대로 즐기기 좋아 젊은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동아오츠카의 '데미소다'에 보드카를 섞어 '데미주'로 활용하면 개성 있는 나만의 믹싱주를 맛볼 수 있다.

광동제약 '뷰팟 스파클링 타입'은 식사 후 청량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로 다른 음료와 믹스하여 활용하거나, 순수한 탄산의 풍미를 그대로 즐겨도 좋다.

하이트진로 '진로믹서 진저에일'은 생강의 맛과 향을 담은 믹서류로 소주, 와인, 위스키, 브랜디 등의 알코올 음료와 섞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술과 음료를 섞어 마시는 젊은 층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제품 그대로의 음료로 마셔도 생강의 맛과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 카레 볶음 라면 등 인기

캠핑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캠핑 스타일도 전문화되고 있다. 간편식단에서 발전해 속 든든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레시피 식품들을 활용하면 좋다.

풀무원 '그대로 볶아먹는 야채믹스'는 숙주, 청경채, 단호박 등 볶음 요리에 어울리는 5가지 야채를 소스와 함께 한 팩에 담은 제품이다. 여기에 풀무원 '순 닭가슴살 햄'과 함께 먹으면 야채만 먹는 것보다 영양 두 배인 나만의 캠핑식단을 즐길 수 있다.

삼양 '불닭볶음면'은 국물이 없는 볶음면의 형태로 출시된 제품인데 기존의 매운 맛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뚜기 '오뚜기 카레 과립분말'과 함께 하면 캠핑장에서 특별한 별미 카레 라면을 즐길 수 있다.

/정의철기자 pensi@metroseoul.co.kr

커피와 홍차, 초콜릿으로 즐기는 오후 홈플러스는 애프터눈티에 어울리는 디스코 테이너스트 관련 상품 40여 종을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강강술래 '더위탈출 문화공연 이벤트'

뮤지컬 '시카고·담배가게 아가씨' 티켓에
쇼핑몰, 알뜰 피크닉세트 등 최대 40%↓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도심 속 더위 탈출을 위한 시원한 문화바캉스를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문화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시카고', '담배가게 아가씨' 티켓과 도서출판 갈렛의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시카고'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의 천재 밥 파시의 진수를 보여주는 1996년 초연 이후 7300회 이상 공연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3번째로 롱런하고 있는 작품으로 최정원, 아이비 등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담배가게 아가씨'는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로 송창식이 부른 '담배가게 아가씨'를 모티브로 제작된 창작뮤지컬이며 박명준 등이 7080세대에겐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익숙한 노래로 뮤지컬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캠핑 주말여행 코스북'은 캠핑을 120% 즐길 수 있도록 도보·자동차 추천 여행코스 등을 소개한다. '나답게 살아갈 용기'는 프랑스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의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이다.

이달 22일까지 쇼핑몰(sullai mall.com)과 전화주문(080-925-1292)을 통해선 '강릉 피서지에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세트(강강양념520g+한돈양념500g+한우불고기500g+돼지양념500g)는 40% 할인된 6만원, 알뜰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는 30% 할인된 4만400원에 판매한다.

/정의철기자

건강한 오라떼 NY 세트 판매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오라떼'가 웰빙푸드 프랜차이즈 '뉴욕핫도그'와 함께 '건강한 오라떼 NY 어린이세트'의 판매를 시작했다.

무탄산·무색소를 자랑하는 오라떼는 우유성분과 복숭아, 사과 등 과즙이 함유된 유성과즙음료로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CCP(카제인칼슘펩타이드)가 첨가돼 성장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건강한 오라떼 NY어린이세트는 뉴욕핫도그 대표메뉴 치즈핫도그와 플레인핫도그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음료류를 오라떼 세가지 맛 중 택1하면 오라떼 토이와 함께 제공된다.

오라떼 토이는 레고프렌즈 20여 종으로 랜덤 증정된다. 판매가격은 4500원.

오라떼는 현재 강남, 논현, 노량진점 등 전국 39개 뉴욕핫도그 매장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세트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민희 브랜드매니저는 "카페인 음료 등 정크푸드 섭취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오라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철기자

유통업계 – 대학 산학협력 활발

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 겨냥

최근 편의점과 온라인몰 등 유통업계와 대학 사이의 산학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며 반기고 있다.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국민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월 경영대학생 총 9명을 선정해 한달 동안 위메프 인턴으로 채용했으며 학생들은 마케팅, 홍보,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본인의 적성도 파악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현장실무형 우수인재를 계용하기 위해 지난 6월 강원도 삼지임서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오는 2학기부터 편의점 관련 강의를 개설한다.

국내 대학에 편의점 관련 강의가 개설된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다. 강사는 관련 분야에 정통한 세븐일레븐 관리자급 직원들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븐일레븐은 지난 14일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위한 학업 지원에도 나섰다. 가맹점주들이 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업 기간 내내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과 함께 정규학과 과정 내에 온라인 패션창업 관련 전공과목인 'G마켓 옥션 패션e비즈니스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오픈마켓이 일반 대학에 정규 학점 과목을 개설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총 3개 과목 9학점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창업을 원할 경우 창업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정혜인기자 hjung@metroseoul.co.kr

/쌤소나이트 레드 제공 /분홍 제공

백팩 메는 여자, 클러치 드는 남자

남성용 백팩 인기에 여성용 별도 출시 간단한 소지품은 클러치백으로 해결

최근 옷차림은 남·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은 보이프렌드 룩을 소화하고 남성들은 타이트한 스키니 팬츠를 입는 것이 더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됐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가방·액세서리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가방은 다양한 크기와 색상, 독특한 디자인으로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풍적으로 백팩은 투박하고 크기가 커 노트북 가방이나 책가방 등으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가방은 여자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녀의 패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백팩을 멘 여자들과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든 남자들이 많아 지고 있다.

백팩은 여성들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 작고 슬림해지는 추세다. 여기에 캔버스와 가죽 등 다양한 소재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가 된다. 블랙, 적포도주, 브라운 등의 색상은 오피스 룩이나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다.

패션에 신경쓰는 남성이라면 포인트 액세서리가 세련미를 뽐낼 때 효과적이다. 최근 불고 있는 미니백 열풍은 투박한 남성 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클러치는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이면서도 간단한 소지품을 넣어 다닐 수 있어 남성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스마트 폰, 태블릿 PC, 뷰티용품 등 들고 다니기도 귀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애매한 크기의 필수품들은 휘뱃 백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의 클러치는 도시적이면서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잇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윤다혜기자 kinqof88@

'물' 만난 아웃도어 업계

아쿠아슈즈·래쉬가드 등 '수상 스포츠' 아이템 선봬

올여름 아웃도어업체들이 '물'을 만났다. 여름철 대표 아이템인 아쿠아슈즈와 함께 래쉬가드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 아이템을 선보이며 판매 경쟁을 옵리고 있는 것.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일부 브랜드에서는 '완판' 아이템까지 등장했다.

네파는 이번 시즌 선보인 아쿠아샌들 '옥토퍼스2'가 지난달 완판된 데 이어 리오더한 물량도 80%의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네파의 '옥토퍼스2'는 접지력이 우수한 '엑스-와이즈' 밑창으로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고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토캡을 적용해 수상레포츠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더가 선보인 '올인원 아쿠아슈즈' 3종은 통풍, 배수 등 아쿠아슈즈 본연의 기능성에 접지력, 쿠셔닝 등 워킹화의 장점을 결합했다. 장마철에는 물론 수중 레포츠, 도심 아웃도어 워킹에서도 신을 수 있는 전천후 신발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화로도 손색이 없는 살로몬의 '코브 라이트'는 신발 양쪽 측면에 통풍이 뛰어난 메쉬 소재를 사용해 발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와 함께 수상 레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상 레저에 적합한 기능성 의류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젠벅은 워터 스포츠웨어 시리즈를 내놨다. 이젠벅 래쉬가드 4종은 몸에 딱 붙는 핏(Fit)에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로 물 속에서 편안한 활동감을 제공하고 자외선과 외부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비치팬츠 3종은 물기를 빠르게 건조시켜주고 몸에 잘 달라붙지 않는 소재로 물놀이 시 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반바지다.

기능성 비치웨어 '꼬니 래쉬가드'는 네온 컬러의 배색 포인트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트렁 티셔츠와 하프팬츠로 구성됐다. 라글란 스타일의 래쉬가드 트렁 티셔츠는 절개라인 스티치 디자인에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하프팬츠는 스트레치 우븐 소재를 사용해 활동하기에 편안하다. 두 제품 모두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나고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각종 스포츠 활동에 좋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것 없으면 바캉스가 즐겁다

태닝엔 각질 제거, 바디메이크업엔 제모 필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다. 바캉스를 떠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없애야 할 것도 있다.

여름철 각질은 바캉스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묵은 각질이 덮인 상태에서 태닝을 할 경우 얼룩덜룩하게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닝을 통해 건강하고 균일한 피부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질 제거가 첫 번째 단계다. 필로소피의 '더 마이크로딜리버리 필 인-혼'은 3분만에 2단계 필링으로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준다.

매끈하고 반짝이는 피부는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며 바디 메이크업을 위한 브론징 파우더를 바를 때도 더 고르게 자연스럽게 펴 바른다. 이때 팔과 다리의 제모가 필요하다. 잘못된 제모는 피부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리따움의 '서머 브레이크 마일드 제모크림'은 천연 유래 추출물을 함유한 저자극 제모크림이다. 팔과 다리에 도포 후 씻어내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알로에 베라잎과 아보카도유 등이 함유돼 피부 진정 효과까지 있다.

세련된 비치웨어와 화려한 샌들은 착용한다면 바캉스 패션을 한층 빛나게 해줄 발끝지 각질 제거도 필요하다.

/정혜인기자 hyein@

운동하면 자궁내막암 발생 예방

주웅 이대 여성암병원 교수 연구논문 발표

운동량이 많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궁내막암 발생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웅(사진)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는 헤드쉬드 표바누지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운동량과 자궁내막암 위험도에 대한 용량-반응 관계 메타 분석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당 1시간의 운동을 한 여성의 자궁내막암 위험도는 5% 줄어들었으며 주당 15시간 운동까지는 비례 관계가 지속돼 운동을 많이 할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더 감소했다.

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순수한 운동 효과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운동으로 인한 체중 감소에서 오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운동에 따른 자궁내막암 위험 감소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암학술지 (IJC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8월호에 게재됐으며 하버드 보건대학원 금나나 선생(제 1저자), 이대여성암병원 주웅 교수(교신저자)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슬렌더톤 프리미엄 3종 출시

저주파 자극으로 엉덩이·복부·팔 관리

슬렌더톤(www.slendertone.co.kr)이 프리미엄 시리즈의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새롭게 출시된 '바텀'(사진)은 여성의 아름답고 탄력있는 엉덩이 라인을 만들어주는 EMS 저주파 자극 보너다. 기존 시스템 제품에 비해 착용이 간단해 일상생활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엉덩이 라인과 허벅지 라인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부와 팔 라인을 관리하는 '액스'와 '암즈'도 함께 출시됐다.

이 제품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와 근육의 특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컨트롤러에 각 신체 부위에 맞는 벨트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컨트롤러 하나와 부위별 벨트 여러 개를 구매해 다양한 부위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슬렌더톤 관계자는 "슬렌더톤 시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근육 강화를 위한 개인용 저주파 자극 기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테스트는 물론 제품의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슬렌더톤은 7월 말까지 신제품을 한정 수량에 한해 20% 할인 판매한다. 또 전국 슬렌더톤 매장에서는 패드 1세트를 추가로 증정하고 사은품 2종도 제공한다. 문의 1566-5662 /하희연 기자

'파격 도전' 레트로 팝 신고식

'슈스케5' 우승자 **박재정**

기존 우승자들과 달랐다

엠넷 '슈퍼스타K5(이하 '슈스케5')'의 우승자 박재정이 데뷔 타이틀곡 '얼음땡'으로 가요계 출사표를 던졌다. 역대 '슈퍼스타K'의 우승자의 데뷔 앨범과는 완벽한 차별화를 꾀했다. 우승과 동시에 데뷔앨범을 선보였던 것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발라드만을 고집했던 선배들과 달랐다.

◆ 고정관념 벗었다

박재정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우승자들의 데뷔 공식을 탈피했다. '슈스케1' 우승자인 서인국은 발라드 '부른다'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어 '슈스케2' 우승자 허각도 발라드 '언제나', 울랄라세션과 로이킴 역시 방송에 노출된 음악과 이미지의 장점을 극대화 한 데뷔 앨범으로 히트했다. 또 대부분 우승과 동시에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박재정은 앨범 제작에만 8개월을 보냈다. 여기에 '착한 발라드'나 '흥행 코드'를 담은 안전한 길을 탈피해 레트로 팝이라는 새로운 음악으로 데뷔했다.

"오랜기간 앨범을 준비하면서 조급함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R&B 발라드부터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었는데 '얼음땡'이라는 노래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다른 노래가 스쳐갔다면, '얼음땡'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덕분에 레트로 팝 장르를 선택할 수 있었죠."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슈스케' 우승자 최초로 래퍼 빈지노가 작사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부르는 걸로 그쳐선 안되겠다. 보컬레슨뿐만 아니라 안무 연습과 무대 위에서의 연기력과 표현력을 갖추기 위해 연기까지 배웠다"며 "'슈스케5' 무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 역대 우승자 최초 여름 겨냥

로이킴이 '봄봄봄'으로 봄의 감성을 자극했다면 박재정은 '얼음땡'으로 올 여름 공략에 나섰다. 냄비노소 전 연령대가 한 번만 들어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얼음 얼음 얼음 얼음이 되니까 땡~ 땡 해줘야만 하는데'라는 반복적인 가사가 인상적이다.

그는 "2030세대라면 어린시절 얼음땡 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노는 문화도 없어졌다"며 "어린시절로 돌아가 누구나 쉽게 듣고 즐겼으면 좋겠다. 에어로빅 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웃음)"고 전했다.

이같은 바람은 향후 활동 계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음악 방송은 물론 대중과 소통을 위해 직접 홍보에 나선다. 그는 "한국 민속촌에서 초대형 술래잡기놀이인 500 얼음땡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올해부터 행사에 참여해서 노래도 들려주고 함께 놀이를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정 재발견, 축구 광팬?

박재정의 머릿 속에는 두가지 키워드가 존재했다. 바로 음악과 축구였다. 곱상한 외모와 감미로운 기타 연주 실력 이외에도 박재정은 해박한 축구 지식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선수는 물론 해외 선수들의 이름과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축구와 음악은 좌심방 우심실과 같다"고 설명한 그는 "K리그 광팬이고 축구 유니폼을 모으는 게 취미다. 구자철과 이용 등 선수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은 60개 정도 가지고 있다"며 "파주NFC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기위해 찾아간 적도 있고, 예전 월드컵 경기는 모두 챙겨봤다"고 말했다.

음악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은 축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K리그 수원삼성 팬인 그는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삼성 경기가 있으면 무조건 보러간다. 벤치 뒷쪽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선수들에게 사인받을 확률도 높다"며 "기회가 되면 축구 해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하은기자 yun@metroseoul.co.kr
사진/한조희(미드엔트웨이블)·디자인/최송이

> 데뷔곡 '얼음땡' 여름 감성 자극
> 우승자 최초 래퍼 피처링 참여 ”

JYJ 31일 멤버십 위크 개최

일본 3000명 등 2만여 팬 관람 예정

그룹 JYJ(사진)가 세 번째 팬 박람회를 연다.

JYJ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2014 JYJ 멤버십 위크'를 연다. 5000평 규모의 행사장에서 지난해보다 더 크고 화려한 콘텐츠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팬 박람회는 2012년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소통형 팬 서비스로 한류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JYJ 음악의 모든 것'이라는 테마로 꾸미진다. JYJ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클럽과 세 앨범의 뮤직비디오 재킷 촬영 세트장, JYJ가 그동안 공연과 뮤직비디오 등에서 사용한 의상 600여 점을 선사해 놓은 드레스룸 등 JYJ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았다.

2012년 7024명의 해외 팬을 불러 모으며 단일 행사로는 최다 외국인 입국 기록을 세웠고 매년 2만명이 넘는 팬의 참여로 화제를 모았다. 올해도 3000명의 일본 팬을 포함해 약 2만여 명이 박람회를 찾을 예정이다.

/황수홍기자 suno@

인피니트 거친 남자로 '백'

이미지 완벽 변신 리패키지 앨범 발표

인피니트가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 '백'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16일 공개한 '백'의 티저 영상은 2집 타이틀곡인 '라스트 로미오'의 귀공자풍 이미지와 180도 다른 거친 남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교차되는 클로즈업과 이미지 컷에는 인피니트 멤버 얼굴에 상처가 뚜렷하며 티저 마지막 컷에는 짧지만 강렬한 액션으로 마무리돼 뮤직비디오 본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춘 '멘 유세이브 미'라고 부르는 멜로디 라인은 애절하고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인피니트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백'은 오케스트라 팝 장르의 음악이다. 그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색깔이 될 것"이라며 "멤버들이 촬영 2주 전부터 틈틈이 액션 스쿨에서 준비를 하는 등 고생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피니트는 이번 주 음악 방송에서 컴백할 예정이며 리패키지 앨범 '비 백'은 22일 온·오프라인에 출시된다.

/황수홍기자

인피니트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백' 티저 영상 캡처

'섹시발랄' 가요계 수은주↑

걸스데이·씨스타·현아 잇따라 컴백 카라 과거·현재·미래 앨범에 담아

"걸그룹들이 몰려온다."

올여름 가요계는 걸그룹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잇따라 컴백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섰다. '섹시 발랄' 콘셉트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걸스데이(큰 사진)가 대표주자로 나섰다. 지난 14일 여름 스페셜 앨범 '썸머 파티'를 발표한 걸스데이는 타이틀곡 '달링'으로 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걸스데이는 '달링'으로 상큼발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 들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후렴구에 엉덩이를 흔드는 귀여운 안무를 조합했다.

21일에는 '가식걸' '기브 잇 투 미' '러빙 유' 등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시키며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씨스타도 발랄함으로 돌아온다. 블랙아이드필승(최규성·라도)이 만든 여름을 겨냥한 밝은 댄스곡 '터치 마이 보디'를 타이틀곡으로 선택했다. 씨스타는 한층 물오른 미모를 드러내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재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8일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현아(작은 사진)는 밝은 섹시함을 선보인다. 현아가 이번에 선보이는 미니 3집 '빨개 요'는 지난 2012년에 발매돼 또 한 번 현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크게 알렸던 '아이스크림'에 이어 1년 9개월 만의 컴백이다. 무대 위에선 도발적이면서 실생활은 귀여운 반전매력을 소유한 그는 이번 컴백에서도 특유의 독보적인 섹시함을 과시할 전망이다.

내달 초 컴백하는 시크릿의 변신도 기대를 모은다. 귀여움 보다는 여성스러운 섹시함이 더 묻어나는 발랄함이 주된 색깔이 될 전망이다.

반면 K팝 한류의 대표 주자인 카라는 다음달 중순 새 앨범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강지영과 니콜이 탈퇴하고 새 멤버 허영지를 영입해 4인조로 처음 내는 신보다. 카라 소속사 관계자는 "미니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카라가 무대에서 보여준 음악과 퍼포먼스를 집약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오기자 yaw@metroseoul.co.kr

동방신기의 이탈리아 여름

휴가 모습 포토북에 담아

그룹 동방신기(최강창민·유노윤호)가 이탈리아에서 보낸 여름 이야기를 포토북에 담았다.

21일 발매되는 동방신기의 '띠아모 동방신기'는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에서 즐긴 휴가지 모습이 담겼다. 멤버들이 이탈리아 거리를 누비는 모습은 물론 현지의 이국적인 풍경까지 담겼다.

이번 포토북은 밀라노의 '자유의 거리', 코모 호수 근교에서 촬영한 '낭만의 거리', 비하인드 컷과 멤버들의 코멘트를 담은 '스토리' 등 총 3권, 430페이지 분량의 화보집과 DVD, 포스터 등으로 꾸몄다. '스토리'에서 동방신기는 여행지 경험담뿐 아니라 데뷔 후 10년간 활동하며 느낀 감정 등 서로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았다.

현재 동방신기의 포토북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예약판매 중이다.

/황성운기자

동방신기 포토북

CJ E&M

Mnet

2014년
강력한 힙합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SHOW ME THE MONEY 3

by Mhiphop

대한민국 유일 래퍼 서바이벌〈쇼미더머니3〉

SHOW ME THE MONEY 3

매주 목요일 밤11시

'별바라기' 팬들만 즐거운 방송

게스트 따라 시청률 들쑥날쑥…강호동 진행 방식도 식상

MBC 목요 예능 프로그램 '별바라기'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별바라기' 4회의 시청률은 2.9%(닐슨코리아 집계·전국 평균, 이하 동일)로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인 KBS2 '해피투게더3'(7.6%)와 SBS '자기야-백년손님'(5.8%)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달 19일 '별바라기'의 첫 회 시청률은 4.0%로 순조롭게 시작하는 듯 했으나 2회는 3.1%, 3회는 3.0%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별바라기' 강호동과 '해피투게더3' 유재석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은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별바라기'가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참방 토크쇼라는 신선한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부진한 이유는 게스트와 시청자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 회 새로운 스타 게스트와 팬이 등장하는 '별바라기'는 그 날 출연진이 누구인지에 따라 시청자의 흥미가 좌우되고 있다. 특히 2, 3회에 등장했던 제국의 아이들이나 클라이투디스카이처럼 넓은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게스트로 등장하면 시청률이 담보되지만 그보다 대중성이 약한 스타의 경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시청자가 팬의 입장이 서지 않는 이상 '별바라기' 속 토크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뿐이다.

'별바라기' 메인MC 강호동. /MBC

'별바라기' 2회 게스트 제국의 아이돌 /MBC

또 메인 MC 강호동의 진행도 식상하다는 반응이다. 연출을 맡은 황교진 PD는 "일반인 게스트가 팬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친화력이 좋은 강호동을 MC로 섭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호동이 '별바라기'에서 보여주는 진행은 SBS '스타킹'과 다를 바가 없다. 큰 목소리와 과도한 리액션은 일반인 게스트의 긴장을 풀어주기엔 적합할지라도 시청자에겐 진부함만 안긴다. 하지만 황 PD는 "2회 녹화 당시 강호동씨가 게스트를 쥐락펴락하는 일명 '낚시 진행'을 선보이기 시작했다"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1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였던 '별바라기'는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산만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패널 숫자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남자 팬 특집'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있지만 시청자의 관심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별바라기'가 목요일 예능의 새 강자로 자리 잡으려면 게스트로 등장한 스타의 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연예인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지연기자 sirius@metroseoul.co.kr

세계적 EDM 듀오 나이프 파티 내한

글로벌개더링코리아 무대

세계적인 댄스 뮤직 페스티벌인 글로벌개더링 코리아 2014가 10월 4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16일 1차 라인업으로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히트 뮤지션 나이프 파티를 발표했다. 국내 팬들에게 '칼잡이'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한 이들은 유명 일렉트로닉 록밴드 펜둘럼의 주축 멤버인 롭 스와이어(보컬)와 가레스 맥그릴렌(베이스)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나이프 파티는 글로벌개더링을 비롯해 데이지 카니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등 세계 유명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나서며 세계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글로벌개더링 코리아'는 2009년 국내 최초의 글로벌 브랜드 뮤직 페스티벌로 출발했다. 그동안 프로디지, 언더월드, 네어비드 게타, 아민 반 뷰렌, 저스티스, 캣보이 슬림 등 매년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아티스트를 라인업으로 소개하며 세계 음악계 유행을 이끌어 왔다. 22일 2차 출연진을 발표한다.

/황순호기자

펜타포트 '원조 록페' 자존심 공연

내달 1일 9회째 개최…관객 친화형 축제

제9회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다음달 1~3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펜타포트는 올해 9회째를 맞아 라인업, 관람 환경, 티켓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아시아 대표 록 페스티벌로 자리잡았다. 펜타포트는 뿌리인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1999년)을 시작으로 한국 페스티벌 문화를 이끌어 왔다. 단순히 라인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공연장소와 캠핑존,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개선된 교통시설 등을 개선하여 관객 우선주의 음악 축제를 지향해 왔다.

해마다 늘어가는 음악 페스티벌 경쟁 속에서도 펜타포트는 지난해 9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원조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는 2014년 영국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이자 2000년대 브릿팝계 최강 밴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카사비안이 새 앨범과 함께 6년 만에 내한한다. 2008년 펜타포트로 처음 국내 팬들과 만난 브릿팝의 3대 뮤지션인 트래비스(사진)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 외에 보이즈 라이크 걸즈, 수이사이덜 텐덴시즈, 스타세일러, 민스캐터 클루조, 더 호러스, 오렌지 렌지 등의 해외 뮤지션이 관란의 무대를 선사한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지난해 들국화에 이어 올해는 이승환이 헤드라이너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 외에 어반자카파, 로맨틱펀치, 디어클라우드, 제퍼슨즈, 네이브레이크, 게리빅뮤튼, 김스턴무디스카, 넘버원코리안, 구남과여라이딘스텔라, 쏜애플, 위아더나잇, 루디스텔로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윤순호기자 suns@

'원 파인 데이' 2차 라인업 발표

정재형 등 힐링 음악 선사

힐링 뮤직페스티벌 '원 파인 데이'의 2차 라인업이 발표됐다.

다음달 29~31일 사흘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열리는 '원 파인 데이'의 2차 라인업에는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을 포함한 10개 팀이 이름을 올렸다.

또 심 '해피' '아이 윌' 등 TV 광고 음악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밴드 모키가 '원 파인 데이'를 통해 국내 무대를 밟는다.

29일엔 슈가볼, 낼리어코스티 고고보이스, 정성하, 30일엔 정재형, 몽니, 모키, 제주소년 어쿠스틱 콜라보, 유석원, 31일엔 언니네이발관, 스탠딩에그, 줄리아하트, 프롬, 모이다밴드 시와가 연주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그린플러그드 측은 "'원 파인 데이'는 음악과 자연, 문화가 결합된 힐링 페스티벌"이라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PiFan 판타스틱한 개막

현빈·손예진·김우빈 등 톱스타 레드카펫 11일간 축제 돌입

현빈

손예진

김우빈

국내 유일의 장르영화 축제인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가 오는 17일 개막식을 열고 11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문화펜사 프로그램으로 축제성을 강화해 대중을 아우르는 영화제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올해 영화제를 준비했다.

17일 오후 7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배우 신현준과 유인나가 사회를 맡았다. 김만수 조직위원장(부천시장)의 개막 선언과 김영빈 집행위원장의 환영인사, 홍보대사인 씨스타 레이디 심은경의 인사말에 이어진 뒤 독일 영화 '스테레오'가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6시부터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린다. 올해 레드카펫 행사에는 '스테레오'의 막시밀리언 엘렌바인 감독을 비롯해 심은경 프로듀서스 초이스 수상자 현빈 손예진, 판타지아 어워드 수상자 김우빈, 잇 스타 어워드 수상자 조진웅 등이 참석한다.

또한 올해 영화제 상영작인 '소녀괴담'의 오인천 감독과 강하늘 김소은, '터널 3D'의 박규택 감독과 정유미·연우진·송재림·도희, '원 컷-어느 진정한 살인자의 기록'의 시라이시 코지 감독과 이오이 즈카사, 김꽃비 등도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이다. 임권택·정지영 감독과 배우 안성기·명계남·문성근·오연매, 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권소현 등도 개막식에 참석해 영화제 개막을 축하한다.

48개국 210편의 다양한 장르영화를 선보일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7일까지 11일 동안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유인나 진이한 남궁민 이영은

로맨틱+스릴러 '마이 시크릿 호텔'

이색 장르 - 유인나·진이한·남궁민·이영은 캐스팅

tvN 새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에 배우 유인나 진이한 남궁민·이영은이 출연한다.

'마이 시크릿 호텔'은 7년 전에 이혼한 부부가 한 호텔에서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다시 만나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로 다른 로맨틱 코미디와 미스터리가 섞인 혼합 장르 드라마다.

유인나는 전 남편의 결혼식을 준비해야하는 얄궂은 운명의 여주인공 남상효를 연기한다. 남상효는 국중 대한민국 최고 호텔 예식사업부의 총 책임자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으로 호텔 총 지배인을 목표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남상효의 전 남편 구해영 역은 진이한이 맡았다. 구해영은 잘 나가는 건축가로 뛰어난 외모와 두뇌까지 고루 갖춘 완벽한 남자다. 하지만 성격은 까칠하고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을 쉽게 생각하는 탓에 결혼생활 100일 만에 종지부를 찍은 철없는 남자다.

남궁민과 이영은은 각각 호텔 전문 경영인 조성겸 역과 호텔 홍보실장 여은주 역에 낙점됐다.

여은주는 욕망에 충실한 똑끈한 성격의 인물로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다. 여은주는 살인 사건을 이용해 호텔 내 주도권 전쟁을 이끌어 나간다.

한편 '고교처세왕' 후속작인 '마이 시크릿 호텔'은 다음달 18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kzm@

도희·우희 '호러 퀸' 도전

'터널 3D'로 스크린 데뷔

걸그룹 타이니지 멤버 도희와 달샤벳 멤버 우희가 '터널 3D'로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한 소감을 전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도희는 "첫 영화로 긴장을 많이 했다. 드라마보다 더 디테하게 촬영하는 것 같아서 감정 표현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주변 분들도 부족한 점을 많이 이야기해줬다. 배우로서는 아직 배우는 단계인 만큼 이번 영화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터널 3D'에서 도희는 깊은 상처를 지닌 미스터리한 소녀를 연기했다. 연기 데뷔작이었던 '응답하라 1997'에서와는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한 그는 "눈빛으로 소녀의 사연을 담아내고 욕심이 있었다"고 연기 변신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첫 서울말 연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어 연습도 많이 했는데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했다.

영화 '터널 3D'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달샤벳의 우희와 타이니지의 도희 /손진영 기자

달샤벳 우희는 '터널 3D'에서 클럽 DJ 예원 역을 맡았다. 그는 "첫 작품인데다 공포영화라는 거리가 먼 밝고 발랄한 캐릭터라서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았다"며 "감독님이 실제 모습처럼 편하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해줘서 편하게 연기했다"고 말했다.

'터널 3D'는 리조트 여행을 떠난 5명의 친구들이 우연히 터널에 갇혀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내용의 영화. 한국 최초로 풀 3D로 촬영된 청춘호러 장르로 다음달 13일 개봉 된다.

/장병호기자

영화 '나의 독재자'의 설경구 류혜영 박해일

설경구, 김일성 대역 연기 끝

'나의 독재자' 크랭크업 - 박해일 아들 호흡

배우 설경구·박해일이 처음으로 만난 영화 '나의 독재자'가 지난 8일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나의 독재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1970년대, 회담 리허설을 위해 독재자 김일성의 대역으로 선택된 무명 연극배우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일성의 대역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새롭고 신선한 설정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설경구는 김일성의 대역을 연기하는 무명 배우 성근 역을 맡아 실존 인물의 대역을 위한 외모 변신부터 아버지이자 소시민으로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섞은 연기력과 페이소스로 그려냈다.

또한 박해일은 어린 시절 우상과도 같았으나 어느 순간 속수무책으로 변해버린 아버지를 인생의 짐처럼 느끼는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아들 태식 역을 맡았다. 전작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변신을 선보인다.

'나의 독재자'는 '천하장사 마돈나'를 공동연출하고 '김씨표류기'를 연출한 이해준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다. 설경구 박해일 외에도 윤제문, 이병준, 배성우, 류혜영, 이규형 등이 출연한다. 후반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대왕대비의 여름 보양식 초계탕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전통적으로 삼복더위는 이열치열로 물리쳤다. 한 여름에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으며 땀 한 바가지를 쏟는 이유다. 하지만 이열치열도 한 두 번이지 솔직히 더울 때는 오장육부까지 얼어 버릴 것 같은 차가운 음식이 더 간절하다.

더위에 지친 몸, 뜨거운 삼계탕은 부담스러울 때 몸보신도 하고 더위도 한방에 날려주며 잃었던 입맛까지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초계탕이 있다. 차갑게 식힌 닭고기 육수를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한 후 닭고기를 가늘게 찢어 넣고 오이 배추 배 등으로 고명을 얹어 먹고 난 다음, 시원한 닭 국물에 메밀국수까지 말아 먹으면 흐르던 땀도 들어가고 없던 힘도 솟아나는 것 같다.

좋은 음식을 보고 흔히 임금님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초계탕은 그 이상이다. 임금님의 어머니인 왕대비, 할머니인 대왕대비의 생일 잔칫상에 주로 올랐던 음식이다.

초계탕을 즐긴 대표적 인물이 정조의 어머니이며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다. 1795년 정조는 회갑을 맞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100리 길을 떠나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 화성행궁으로 행차해 성대한 회갑잔치를 열었다. 이때 차린 음식 중에 조계탕이 보인다. 헌종 14년 창경궁 통명전에서 열린 대왕대비의 생일잔치, 고종 때 덕수궁 경운당에서 열린 헌조의 계비 효정왕후 홍씨의 칠순잔치에도 초계탕을 준비했다.

그런데 왕실잔치를 기록한 진연의궤나 진찬의궤를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대왕대비, 왕대비의 생일상에는 초계탕이 놓이지만 임금이나 신하의 음식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초계탕과는 달리 버섯, 전복, 해삼을 비롯한 산해진미가 들어간 고급요리여서 생일 주인공에게만 차린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여자에게 좋은 음식이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초계탕이 왕실 웃어른의 수랏상에만 특별히 오른 보양식인 것만은 분명하다. 내일이 초복이다. 뜨거운 삼계탕이 부담스러우면 시원한 초계탕으로 여름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4		7		5	3
2					8		7	
7		3				9		
1			5		6			2
		2				5		8
	9		7					6
4	1		8		2		9	
				4				

7		5	6		3			
	1			8	5		7	
3						8	9	
			3					7
			2	7	1			
5					4			
	3	2						9
	4		1	2			6	
			8		7	1		4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엔서 스도쿠 라이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카페 동업중, 전망과 결혼은 언제쯤
인내하고 견디면 40줄에 좋은 일이

Q 이보다더 남자 80년 7월 27일 음력 오전 11시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잘 살아온 거 같은데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4년하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조그마한 테이크아웃 가게를 지인과 동업으로 오픈하였는데 아직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한 게 잘 한 건가하고 앞으로 잘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한 동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인연을 만날 수 있을 지도요. 제가 사주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주 공부할 팔자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의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사주 공부할 팔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학습의 훈련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하듯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다만 사범대를 다녔다고 다들 교육자가 되지는 않듯이 사주 공부를 하여 직업으로 택하고 말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입니다. 궁금해 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하다보면 현실이 이뤄되어 그다음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사주구조에서 볼 때 운세의 흐름에서 합리적으로 하였으나 그러나 2015년부터 흔들려서 동업을 파기 할 수도 있으니 꾸준히 이끌어 기다보면 40줄에 들어설 때 재물과 명예를 이루게 됩니다. 생신적은 혼자하면 하나를 벌었으나 둘이 하면 4가 되기도 하고 3이하면 8이 되는 것도 동업이나 협동의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2016년 까지 월극세군(겁재)가 세운을 극(剋)하고 있으며 재물 운이 절살(殺) 추돌)을 담하고 있으니 침체기가 있기도 합니다. 동업자와 같이 동업 시 유의 할 점은 이득을 반반씩 나눠 갖도록 계약이 되었다더라도 같이 일을 하려면 항상 상대보다 내가 덜 가져가고 더 많이 일을 한다고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테이크아웃 가게는 다양한 정보를 우선 접수하고 주변 상권부터 파악하셔야 됐는데! 점포의 반경 200m 안에 커피전문점이 몇 개정도 있는지 유동인구나 입지적인 것 등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원드존Shop 가번터 옷가게, 액세서리 꽃집 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7일 (음 6월 2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자녀에 투자한 보람 느낀다. 60년생 포부는 큰데 현실이 안 따르는구나. 72년생 식당업 종사자는 뜻밖의 매출이 생긴다. 84년생 공격인 자리선 튀는 행동 조심~

소 49년생 떠난 버스 빨리 잊어라. 61년생 객관성 잃으면 실책이 생긴다. 73년생 아무 착한다고 고집 부려서 일 더 키우지 말라. 85년생 짝이 꿈꾸는 이성과 마주한다.

호랑이 50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2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한 하루~ 74년생 염분과 대의 따르면 자자자가 늘어난다. 86년생 부모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

토끼 51년생 잠시 쉬며 자신 되돌아보라. 63년생 기다리던 희소식 문 앞에 당도한다. 75년생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87년생 소망한 일은 어렵게 이루어진다

용 52년생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 64년생 건강의 경고신호 잘 파악할 것. 76년생 손해 보더라도 소신 지키는 게 이롭다. 88년생 열이 어렵다고 상사만 쳐다보지 말라

뱀 53년생 사소한 일에 너무 集착지 말라. 65년생 뜻밖에 경사가 생긴다. 77년생 실수는 반성하되 정산력은 잃지 말라. 89년생 어려운 고비 넘기고 칠주만 남았다

말 42년생 배우자가 고민다는 생각이 든다. 54년생 사소한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66년생 고대한 일에 청신호가 켜진다. 78년생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할 것

양 43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로구나. 55년생 팔 칭찬 때문에 공은 커진다. 67년생 눈으로 짧은 안전 정보는 과감히 버려라. 79년생 선택의 기로서 고민에 빠진다

원숭이 44년생 욕심 부리면 어깨만 상한다. 56년생 진인 살리려면 익익 자제하라. 68년생 남의 불평에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게이다. 80년생 목숨 걸더라도 꿈은 포기 말라

닭 45년생 자녀 의견 따르는 게 이득~ 57년생 진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69년생 속도가 붙은 일 탄력 잃지 않도록 조심~ 81년생 간절히 구하면 길은 열린다

개 46년생 외람하면 위어 준다. 58년생 잘 하는 일은 빨리 지우라. 70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해 준다. 82년생 완인에게 속내도 수위조절해야 고백할 것

돼지 47년생 사람 추천은 신중할 것. 59년생 의지했던 사람이 섭섭하게 만든다. 71년생 기까워도 음주운전 절대 말라. 83년생 어려운 냇을 도울 수 있어 보람 느낀다

“굿바이 지터!” 화려한 고별전

마지막 올스타전 2타수 2안타 기립박수…팀 5-3 승리 도움

뉴욕 양키스의 영원한 캡틴 데릭 지터(40)가 현역 마지막 올스타전을 전 타석 안타로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지터는 1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센터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아메리칸리그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부터 2루타를 치고 나가 팀의 첫 득점을 올렸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도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했다.

4회 수비를 위해 그라운드에 나선 지터는 곧바로 알렉세이 라미레스(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교체돼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그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현역 올스타의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했다.

1995년 양키스에 데뷔해 올해로 20년째 한 팀에서만 유격수로 뛴 지터는 올스타전에는 1998년 처음 발탁된 이후 총 13차례 출전했다. 시즌 전 부상으로 부진했던 지터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전반기 맹활약했다. 현재까지 통산 타율 0.311, 안타 3408개, 1286 타점을 기록했다. 통산 안타 순위 9위에 올라 있다. 1996년, 1998~2000년, 2009년 5차례 양키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지터는 지난해 은퇴한 선발 투수 앤디 페티트,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 앞서 현역을 접은 포수 호르헤 포사다와 더불어 양키스의 핵심 전력으로 군림해 왔다. 흑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터는 매력적인 외모를 바탕으로 여러 여자 연예인과 염문을 뿌리기도 했다.

나이키는 2006년 지터와 10년간 1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 계약을 했고 올스타전을 기념해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이 등장하는 편집 광고를 제작했다.

현재 각 구장을 돌며 원정 경기에서 고별 투어를 진행 중인 지터는 28일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작별 인사를 전한다.

한편 이날 경기는 아메리칸리그가 내셔널리그를 5-3으로 누르고 2년 연속 올스타전 승리를 거뒀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신예 마이크 트라우트는 3루타와 2루타를 각각 하나씩 치며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데릭 지터가 4회초 교체돼 나가면서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AP 뉴시스

박인비, KLPGA 유망주와 대결

18일 제주서 김효주·백규정 등과 경쟁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실패의 아쉬움을 털고 국내에서 우승을 노린다.

박인비는 18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파72·6522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5억원)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주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4개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쥐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하며 아쉽게 다음 기회로 미뤘다.

올해는 지난 시즌 절정의 기량을 잇지 못하고 세계 랭킹이 3위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올시즌 LPGA 첫 승을 거두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국내 유망주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선두주자는 KLPGA 2연승을 달린 지난해 신인왕 출신 김효주(18·롯데)다. 한국여자오픈에서 국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상금(4억5938만원)과 대상포인트(246점)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김효주는 2008년 유소연 이후 5년 만에 KLPGA 투어에서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이와 함께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와 지난달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승수를 쌓으며 신인왕 포인트 1위(800점)를 기록하고 있는 백규정(19·CJ오쇼핑)도 우승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스페인 코스타 첼시 이적

‘득점왕’ 로드리게스는 레알 마드리드행

스페인 축구 대표팀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26·사진)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로 이적한다.

첼시는 16일 코스타와 5년 계약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적료는 3200만 파운드(약 563억원)로 알려졌다. 코스타는 “첼시로 오게 돼 매우 기쁘다. 매우 경쟁력 있는 리그의 빅클럽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고 나 역시 잉글랜드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구단을 통해 전했다.

코스타는 스페인 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지난 시즌 52경기에 나서 36골을 기록하며 팀이 18년 만에 프리메라리가 정상에 오르는 데 앞장섰다. 첼시에는 사뮈엘 에토오, 페르난도 토레스, 뎀바 바 등의 공격수가 있지만 지난 시즌 부진하며 골 가뭄에 시달렸다.

첼시는 공격진 보강을 위해 이번 여름에 세스크 파브레가스, 마리오 파살리치를 앞서 영입했다.

한편 브라질 출신인 코스타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스페인으로 귀화해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지만 부상 후유증을 털지 못하고 별다른 활약 없이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한편 스페인의 한 스포츠 전문지에 따르면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는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인 콜롬비아 공격수 하메스 로드리게스(23·AS 모나코)와 연봉 750만 유로(약 105억원)에 구두 계약을 마쳤고 모나코와 협상만을 남겨놓고 있다.

/유순호기자

류승우 2018 월드컵 유망주 톱10

ESPN 선정… 명문 클럽 기대주와 어깨 나란히

한국 축구 유망주 류승우(21·사진)가 차기 월드컵을 빛낼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전문매체인 ESPN은 15일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주 10인 중 한 명으로 류승우를 꼽았다. ESPN은 “한국은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스타 플레이어인 손흥민(22·레버쿠젠), 기성용(25·스완지시티)이 여전히 젊은 나이대로 뛰고 있을 것이며 FC바르셀로나 유스팀 소속 이승우 역시 스페인에서 의미 있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류승우가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모은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독일에서 류승우에게 주어진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이제 막 팀 동료인 손흥민의 발자취를 이어나가고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류승우는 지난해 7월 터키에서 치러진 2013 20세이하(U-20)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해 한국의 8강 진출을 견인하며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의 눈도장을 받았다.

류승우 외에도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 ESPN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U-20 월드컵 우루과이 ‘깜짝’ 준우승의 주역인 미드필더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20·스포르팅), 브라질 현 국가대표 센터백 치아구 시우바(30·파리 생제르맹)와 다비드 루이스(27·첼시)를 위협할 만한 재목인 마르키뉴스(20·파리 생제르맹)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6세의 나이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벨기에 출신 중앙 미드필더 아우리 틸레만스(안더레흐트)와 질레 스트라이커 니콜라스 카스티요(21·브뤼헤)도 유망주로 꼽혔다. 지난해 17세 이하 월드컵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켈레치 이헤아나초(18·맨체스터 시티), 콜롬비아 출신 센터백 제이슨 무리요(22·그라나다), 스페인의 부활을 이끌 공격수 헤세 로드리게스(21·레알 마드리드)도 포함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

프로야구 전적

■잠실

팀				R
삼성	002	000	000	2
LG	300	103	20X	9

[illegible]

■문학

팀				R
한화	240	104	100	12
SK	300	000	000	3

[illegible]

■사직

팀				R
넥센	000	300	100	4
롯데	000	000	012	3

[illegible]

■마산

팀				R
두산	100	420	001	8
NC	400	002	40X	10

[illegible]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